

토성면

토성면은 법정리 16개 행정리 33개 130개반을 형성하고 있다. 총면적은 119.74km²이다. 1991년 세계장애비야영대회를 신평리(新坪里)에서 개최함에 따라 대대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세계 속의 한국을 부각시키는 약속의 땅으로 각광 받고 있다. 천진리, 청간리, 아야진리, 교암리, 백촌리, 운봉리, 학야리, 도원리, 성대리, 용암리, 신평리, 인흥리, 성천리, 원암리, 용촌리, 봉포리 마을이 있다.

▶토성면 시민기자 강성희(ruthcanada@hanmail.net)
 ※토성면에서 발생하는 아기자기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민기자를 모집한다. (문의 : 681-1666)

“동문 화합 위해 열심히 뛰겠다”

천진초 제5대 이춘우 총동문회장 취임 ... 동문회 발전기금 조성 노력

1925년 설립돼 올해로 8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천진초등학교 제5대 총동문회장에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출신인 이춘우씨(사진)가 취임했다.



1일 천진공립학교로 설립했으며, 1951년 수복후 천진국민학

교로 개교했다. 지난해까지 74회의 졸업생 총 5,691명을 배출했다.

수복 후 7회, 전체 25회 졸업생인 이 회장은 동광고와 속초고를 거쳐 동우대를 졸업했다. 1968년 공직에 입문해 고성군 자치행정을 역임하고, 2008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기획감사실장을 끝으로 4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현재 고성군 궁도연합회장을 맡고 있으며, 가족은 부인 임덕춘씨와 1남1녀. 최광호 기자

지난 29일 토성복지회관에서 취임식을 가진 신임 이춘우 총동창회장은 “동문회 화합과 단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이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문회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모교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천진초등학교는 1925년 4월

토성구장서 축구팀 친선경기



겨울철 동계훈련 최적지로 손꼽히는 고성군에 올 겨울 들어서도 프로팀, 대학팀, 중고팀 등 10여개팀 400여명이 동계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토성구장에서 대구FC팀과 함멜실업축구팀이 친선경기를 펼쳤다. 박승근 기자

시민기자 수필

“행복의 시작에 바로 ‘학교’가 있었다”

부모가 되어서 자기 아이를 염려하고 그 아이의 장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레 우리나라 마음일 것이다. 특별히 아이가 아직 어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엔 더욱더 그 아이를 위한 최선의 환경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부모라 해서 미리 앞날을 점칠 수는 없는 것이니,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아이를 위해 어떤 길을 대신 결정해야 하는 건 버거운 책임이요, 그만큼 엄숙한 문제일 것이다.

토론토 대학에 연구원으로 가게 된 아빠를 따라 세 살에 캐나다에 갔다가 열 한 살 된 딸아이를 다시 한국에 데리고 올 결정을 했을 때가 바로 그러한 선택의 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를 그곳 교육을 받고, 4학년부터는 캐나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험을 합격한 상태여서, 사실 우리의 결정을 들은 지인들은 한번 더 생각해보라며 만류하곤 했다. 그래도 ‘더 늦기 전에’라는 마음이 더 강했던 건, 아이가 나중에 자라 자기의 정체성을 놓고 고민하게 될 때, 당당히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려면 한국의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서였

“아이들이 배우는 창의성과 자율성도, 학부모와 교사의 긴밀한 연계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느낀다”

다. 원주에서 1년을 4학년에, 안양에서의 1년을 5학년에 아이를 보내면서 우리는 외국인학교도 대안학교도 아닌 일반 공교육 속에서 아이가 한국에 적응해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걸로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아이는 점점 말도, 웃음도 잃어가기 시작했다. 물어봐도 그냥 학교가 재미없다는 말만하고 받아오는 상이 ‘질서상’, ‘다독상’, ‘바른 어린이 상’ 등인 걸 보면서 학교에서 말없이 책만 보는 아이의 모습이 연상되어 마음이 아팠다. 그 때 우연한 기회에 영랑동에 있는 승마장을 알게 되었다. 캐나다에서 한 8개월 말 타는 걸 배웠던 아이에게 좋은 선물이 되겠다 싶었던 건 그곳이 다른 승마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서 2007년 여름, 친한 고등학교 친구 집에 아이를 두주 머물게 하면서 승마를 보냈는데, 그 때 친구를 통해 지금의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초등학교를 알게 되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너무나 재미있어 해서 아이 가진 엄마로서 참된 행복을 느낀다는 말을 듣고 그 해 12월을 체험학습으로 왔다가 6학년 때 아예 전학을 하게 되었다.

그 때 전교생이 21명인 학교는 하나의 가족과 같이 지냈다. 1학년 시험 문제에 쉬는 시간에 바른 행동을 한 어린이를 찾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구된 답은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음 시간 공부를 준비한다였다. 그 외 답으로 제시된 것들이 운동장에서 논다, 옆 반에 가본다, 장난감을 만든다 등이었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그걸 다 하기 때문에 답을 고르지 못하는 걸 보고

마음이 흐뭇했다. 1,2교시를 묶어서 하고 우유 급식시간에 적어도 30분씩을 노는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참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았다. 5학년, 6학년이 복식 수업을 하는 교실 안에서 아이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형제가 없는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꼭 붙어다니며 깔깔대며 노는 것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인원수가 작은 만큼 한 아이, 한 아이가 소중하고 우리는 어느새 내 아이만의 엄마가 아닌 전교생 21명의 엄마가 되어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봄방학 기간 동안에 학원을 다니지 않아 무료해하는 아이들을 위해 오전 시간을 엄마들이 학교에서 돌아가며 영어, 숲 해설, 환경 게임, 딱지 접기, 노래배우기 등으로 일주일간 캠프를 열었다. 선생님들의 전적인 협조 아래 엄마들과 아이들이 신나게 놀았던 시간이었다. 그 일을 계기로 아침 9시부터 30분간 매일 아이들과 영어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영어 열풍 속에 상대적으로 늘 기죽어 있던 아이들이 영어 골든벨까지 치루어 내는 걸 보고 내심 너무나 뿌듯했다.

아이들은 소규모학교(두레 학교) 예산에 의해 모든 활동과 현장학습을 자비부담 없이 혜택을 받았다. 월요일엔 도예, 화요일엔 댄스스포츠, 수요일엔 농악과 사물을 배우는데 인근 마을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청될만큼 실력이 대단하다. 자랑 같지만 우리 아이는 부 상쇠로 팽과리를 쳤다. 캐나다에서 놀러있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목요일엔 플룻을 배우는데 악기 구입을 학교에서 다 해주는 걸

보고 놀랐다. 금요일엔 영어를 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는 건 여느 큰 학교처럼 돈을 내고 신청하는 몇몇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교생이 모든 활동에 다 같이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서 5시까지 보내는데 엄마들은 아무 걱정 없이 하루 종일 아이들을 학교에 맡겨놓는다.

요즘처럼 부모가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때에 도학의 예는 현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도학 아이들은 언제나 손톱깎기를 가져온 엄마에게 자연스레 손을 내밀고 손톱을 깎는다. 점심 시간에 시간이 되는 아빠들은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야구를 하느라 본인들이 더 신나한다. 합동체육 시간에 선생님들이 만들어주는 대나무 낚시대에 직접 지렁이를 잡아 끼우고 개울에서 낚시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인성이 자라는 게 피부로 와 닿는다. 아이들이 배우는 창의성과 자율성도, 학부모와 교사의 긴밀한 연계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느낀다. 우리 가족이 고성군에 오면서 얻게 된 행복의 시작에 바로 ‘학교’가 있었음을 지면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강성희 시민기자 약력

- 고성 출신
- 속초여자고등학교 졸업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현재 고성지역 초등학교 영어강사